

주요 노동동향

경제일반

◆ 2008년 7월 생산-건조한 증가세 유지, 소비-증가로 전환, 투자-증가

○ 2008년 7월 광공업 생산은 노사분규 등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출 확대 및 소비재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9.1%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통신업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9%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17.4%), 영상음향통신(33.3%), 기타 운송장비(28.8%)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자동차(-4.9%), 섬유제품(-4.9%) 등에서 생산이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8.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6.1%), 통신업(5.7%), 도소매업(5.5%)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유일하게 부동산 및 임대업(-6.8%)만이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재 판매는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정용 직물 및 의복 등의 준내구재, 비가공식품 등의 비내구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로 전월보다 0.1p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

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가 전년동월대비 6개월째 동반 하락세를 보임(그림 3 참조).

◆ 2008년 8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전년동월대비 5.6% 상승)

○ 2008년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하였으며, 공업제품(9.7%), 서비스(4.0%), 농축산물(3.5%) 순으로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6% 상승함.

－ 2008년 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하락하였으며, 이는 석유류가 전월대비 6.0% 하락함으로써 전월대비 물가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					2007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3/4	4/4	연간	1/4	2/4p	6월p	7월p
생산	산업생산	12.8	11.5	11.3	5.2	10.1	4.0	7.0	13.5	6.0	11.0	6.8	10.6	8.6	6.8	9.1(-0.2)
	제조업 생산	13.4	12.1	11.8	5.6	10.5	4.1	7.1	14.0	6.1	11.2	7.0	10.7	9.0	7.0	9.1(-0.2)
	출하	9.7	9.0	9.2	3.8	7.8	5.1	7.2	14.1	5.5	10.6	7.1	8.9	6.4	4.4	8.5(1.3)
	수출	13.1	14.2	15.7	5.6	11.9	6.7	9.9	15.3	9.4	16.2	10.5	14.3	13.6	10.9	14.2(3.9)
	내수	7.1	4.9	3.8	2.2	4.5	4.1	4.9	13.4	2.7	6.8	4.8	5.3	1.8	0.3	4.6(0.3)
	서비스업 생산	6.2	5.4	4.5	4.8	5.2	5.4	6.4	9.6	7.2	6.8	6.4	6.4	4.6	2.9	3.9(1.1)
소비	소비재 판매	5.3	6.1	2.9	4.5	4.7	5.7	5.2	8.9	7.1	4.5	5.3	3.9	2.5	-1.0	3.9(4.5)
투자	설비투자	6.2	6.7	11.8	5.1	7.4	12.8	12.1	2.2	0.7	9.2	8.6	-0.9	0.1	4.4	10.7(2.0)
물가		2.0	2.3	2.5	2.2	2.2	2.1	2.4	2.0	2.3	3.3	2.5	3.8	4.8	5.9	5.6(-0.2)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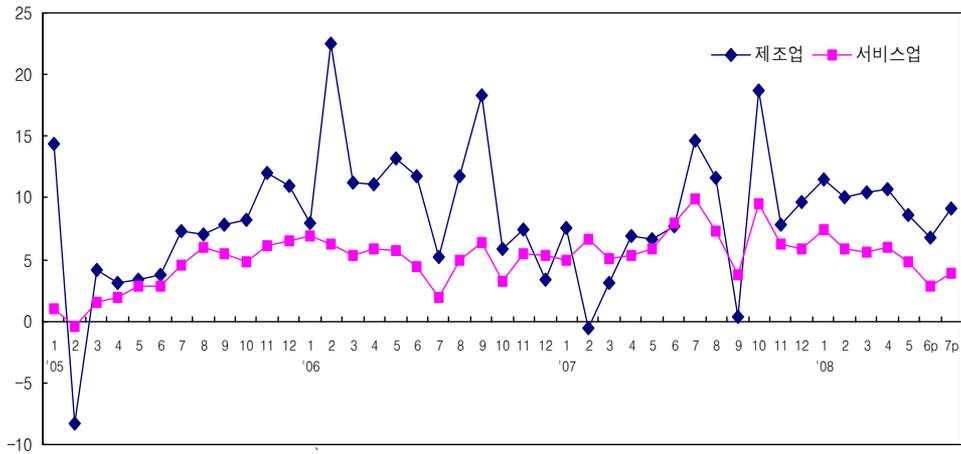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3) 물가는 7월, 8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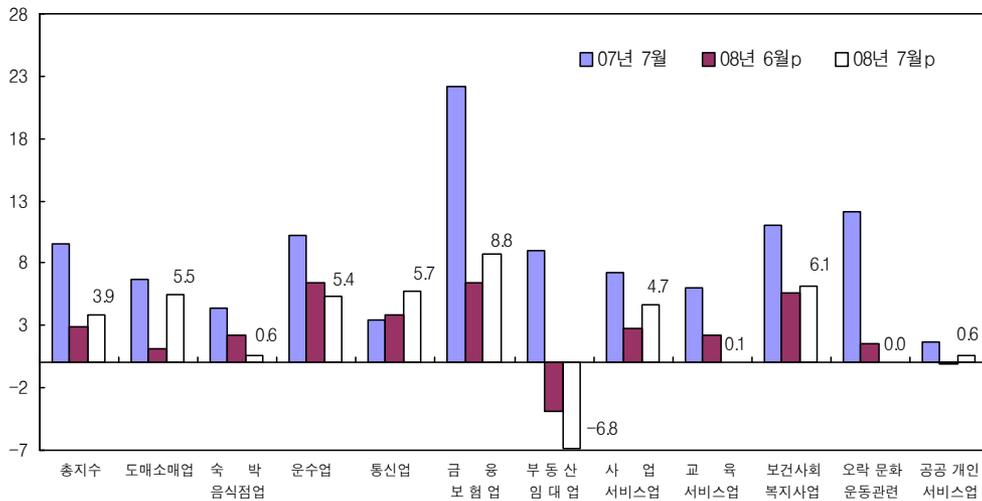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8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0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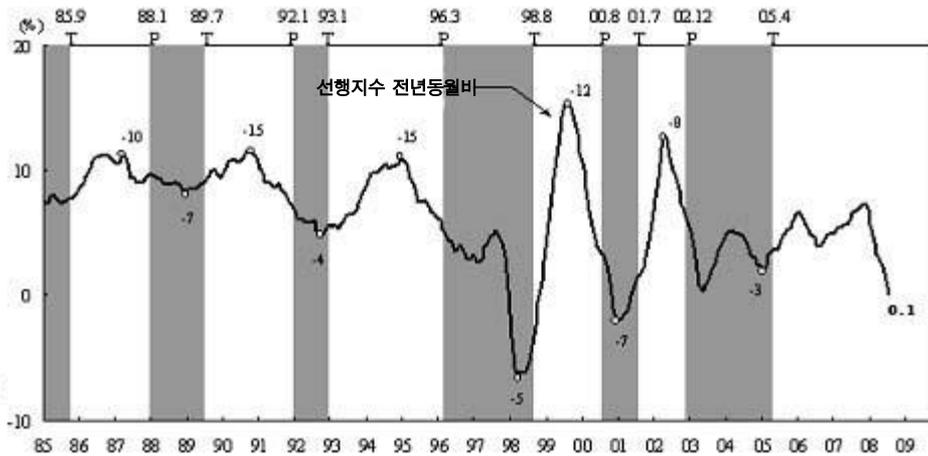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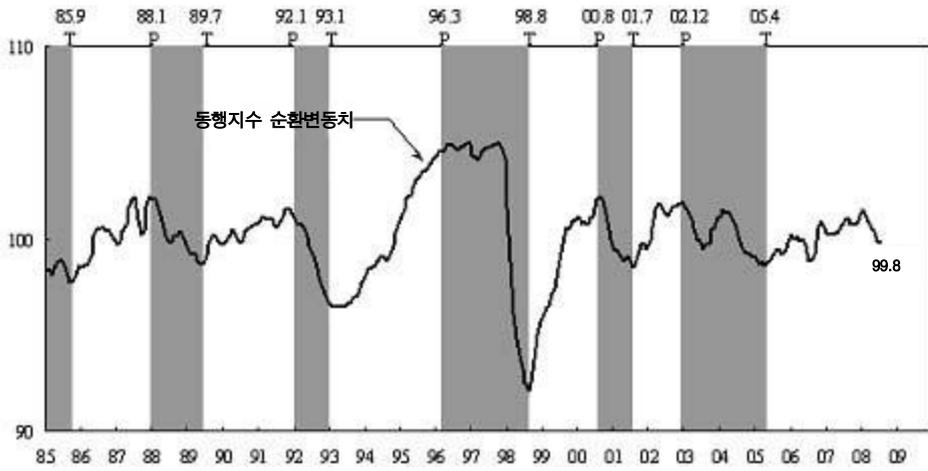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 :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2008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08. 8.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2008년 7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67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8천 명(0.5%)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382천 명으로 97천 명(0.7%)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290천 명으로 31천 명(0.3%) 증가함.
- 2008년 7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4.4%)이 전년동월대비 0.4%p, 여성(50.7%)이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함(그림 4 참조).
- 2008년 7월 중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1.8%, 여성의 고용률은 49.4%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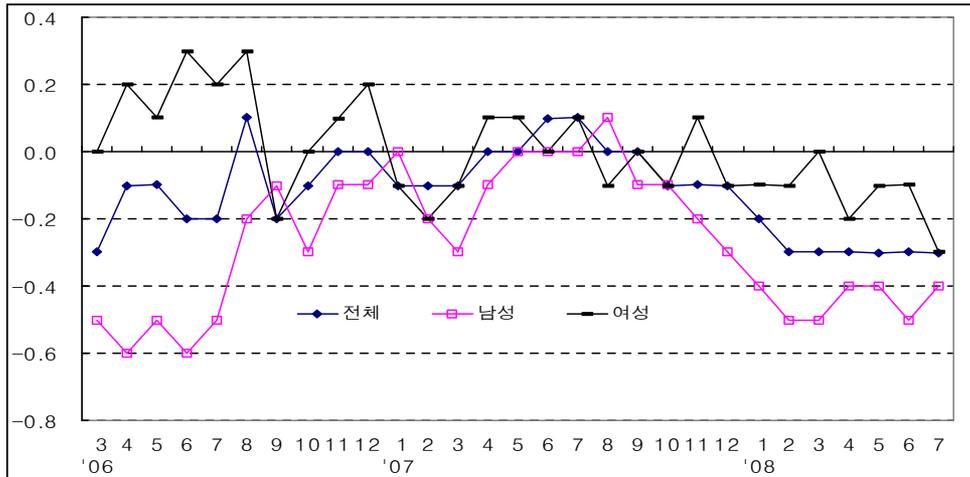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경제활동인구	23,692 (0.9)	24,489 (1.1)	24,367 (1.1)	24,545 (1.1)	24,316 (1.0)	23,852 (0.7)	24,638 (0.6)	24,727 (0.5)	24,673 (0.5)
참가율	60.8	62.6	62.1	62.6	61.8	60.5	62.3	62.5	62.3
취업자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750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63 (0.6)	23,903 (0.6)
고용률	58.6	60.6	60.2	60.6	60.0	58.5	60.4	60.5	60.3
실업자	851	791	756	795	734	801	767	764	769
실업률	3.6	3.2	3.1	3.2	3.0	3.4	3.1	3.1	3.1
비경제활동인구	15,305 (1.4)	14,647 (1.0)	14,865 (1.0)	14,660 (0.8)	15,000 (1.3)	15,575 (1.8)	14,903 (1.7)	14,854 (1.8)	14,949 (2.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2008년 7월 고용동향』, 2008. 8.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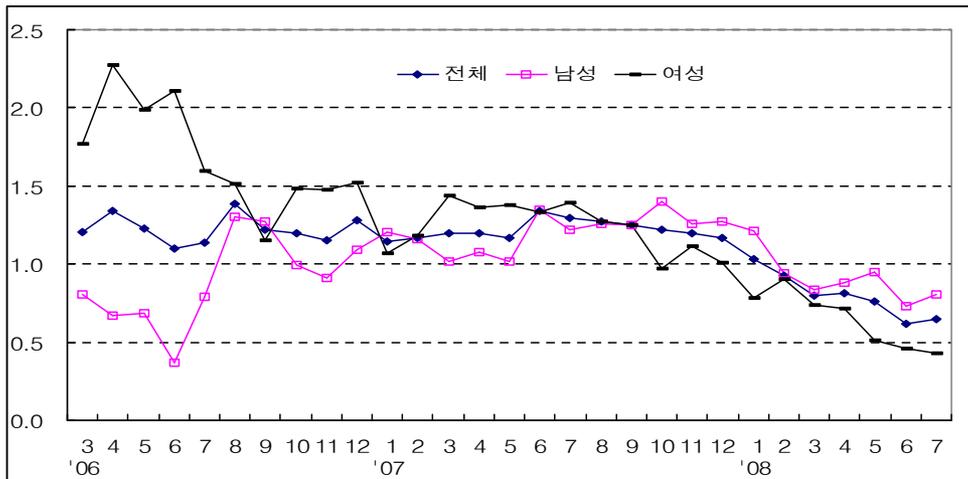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08년 7월 중 취업자는 23,9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3천 명(0.6%)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8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천 명(0.8%), 여성 취업자는 10,0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천 명(0.4%)이 증가함.
- 2008년 7월 중 실업자는 7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3.2%)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50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 명(-2.7%)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6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 명(-4.2%)이 감소함.
 - 실업률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3.5%(남성), 2.6%(여성)를 기록함.
- 2008년 7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9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9천 명(2.0%)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4,9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천 명(2.9%)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9,9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2천 명(1.5%)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26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 감소함.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8년 7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7천 명, 3.9%)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4천 명, -0.8%), 농림어업(-43천 명, -2.3%), 제조업(-295천 명, -0.7%), 건설업(-26천 명, -1.4%), 전기·운수·통신·금융업(-9천 명, -0.4%)에서 감소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추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07년 하반기 이후 건설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짐(그림 6 참조).

◆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감소

○ 2008년 7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54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천 명(-1.1%)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36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6천 명(1.5%)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381천 명, 4.4%)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91천 명, -1.7%) 일용근로자(-53천 명, -2.4%)는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증가세를 이어나가며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7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전 산업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750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63 (0.6)	23,903 (0.6)
농림어업	1,450 (-2.8)	1,900 (-2.7)	1,866 (-3.7)	1,867 (-4.1)	1,690 (-3.8)	1,388 (-4.3)	1,848 (-2.7)	1,890 (-2.8)	1,824 (-2.3)
제조업	4,138 (-1.2)	4,126 (-1.3)	4,093 (-1.2)	4,126 (-1.3)	4,120 (-0.9)	4,114 (-0.6)	4,101 (-0.6)	4,107 (-0.8)	4,097 (-0.7)
건설업	1,772 (2.7)	1,934 (1.6)	1,843 (-0.3)	1,855 (0.2)	1,853 (-0.5)	1,754 (-1.0)	1,896 (-2.0)	1,874 (-3.1)	1,829 (-1.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43 (-1.0)	5,715 (-1.0)	5,722 (-0.2)	5,781 (-0.4)	5,723 (-0.3)	5,707 (-0.6)	5,673 (-0.7)	5,677 (-0.6)	5,737 (-0.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357 (4.3)	7,606 (4.8)	7,674 (5.2)	7,704 (5.4)	7,762 (5.0)	7,684 (4.4)	7,924 (4.2)	8,002 (4.3)	8,000 (3.9)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63 (2.8)	2,400 (3.3)	2,396 (2.5)	2,400 (2.6)	2,415 (1.8)	2,385 (0.9)	2,410 (0.4)	2,394 (-0.1)	2,39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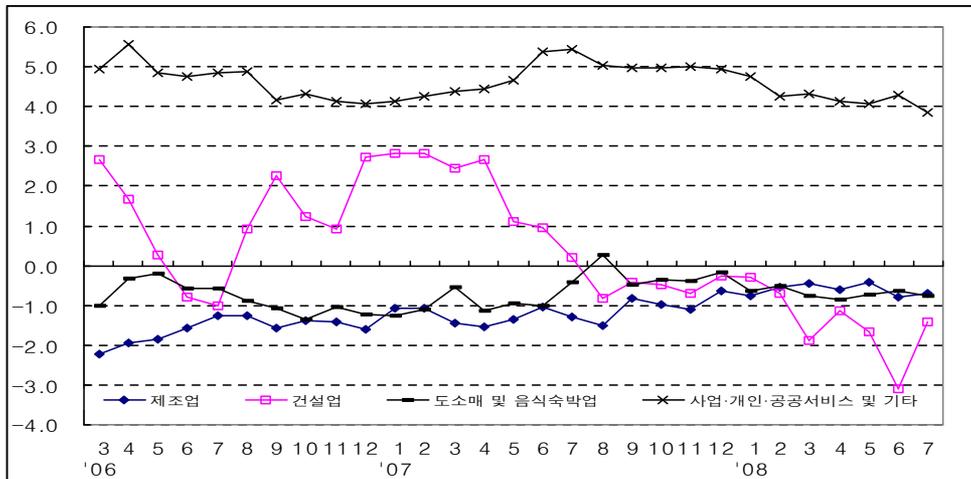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2008년 7월 고용동향』, 2008. 8.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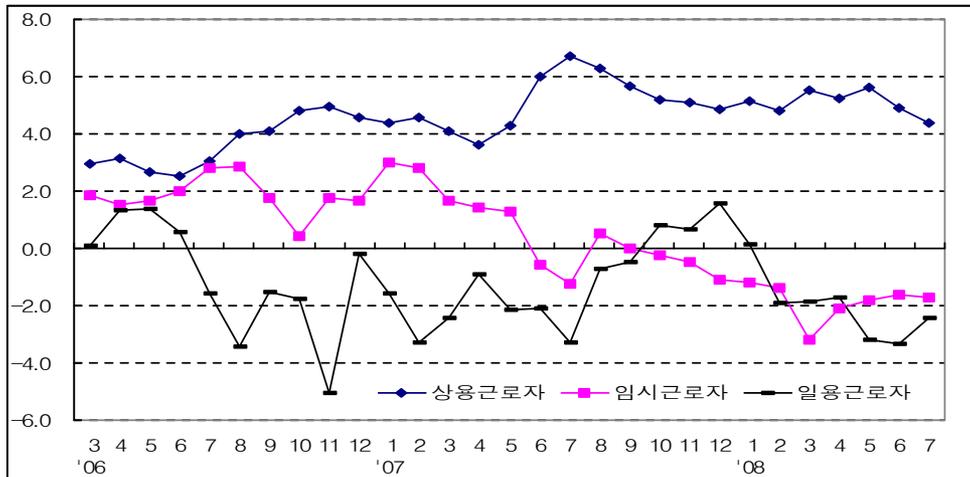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전 체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750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63 (0.6)	23,903 (0.6)
비임금근로자	7,199 (-2.2)	7,637 (-1.1)	7,589 (-2.2)	7,624 (-1.3)	7,426 (-1.8)	7,097 (-1.4)	7,521 (-1.5)	7,578 (-1.5)	7,540 (-1.1)
자영업주	5,895 (-1.9)	6,139 (-0.9)	6,128 (-1.3)	6,145 (-0.7)	6,035 (-1.4)	5,816 (-1.3)	6,073 (-1.1)	6,093 (-1.6)	6,062 (-1.3)
무급가족종사자	1,304 (-3.2)	1,498 (-1.8)	1,460 (-5.9)	1,479 (-3.8)	1,391 (-3.4)	1,281 (-1.8)	1,449 (-3.3)	1,485 (-0.9)	1,478 (-0.1)
임금근로자	15,642 (2.8)	16,061 (2.4)	16,022 (3.0)	16,127 (2.6)	16,156 (2.6)	15,954 (2.0)	16,350 (1.8)	16,385 (1.6)	16,363 (1.5)
상용근로자	8,404 (4.3)	8,533 (4.6)	8,753 (6.2)	8,674 (6.7)	8,790 (5.1)	8,839 (5.2)	8,981 (5.2)	9,039 (4.9)	9,054 (4.4)
임시근로자	5,163 (2.5)	5,237 (0.7)	5,133 (-0.3)	5,254 (-1.2)	5,156 (-0.6)	5,064 (-1.9)	5,141 (-1.8)	5,132 (-1.6)	5,163 (-1.7)
일용근로자	2,075 (-2.4)	2,291 (-1.7)	2,135 (-1.5)	2,199 (-3.3)	2,211 (1.0)	2,051 (-1.2)	2,227 (-2.8)	2,214 (-3.3)	2,146 (-2.4)
36시간 미만	3,014 (6.4)	2,564 (1.7)	3,962 (23.7)	4,312 (44.4)	2,549 (-5.1)	2,770 (-8.1)	3,055 (19.1)	2,679 (6.0)	2,760 (-36.0)
36시간 이상	19,384 (0.2)	20,906 (1.1)	19,227 (-2.4)	19,098 (-5.1)	20,806 (2.2)	19,888 (2.6)	20,546 (-1.7)	20,964 (-0.5)	20,815 (9.0)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8년 7월 고용동향』, 2008. 8.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08년 7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76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52천 명(-36.0%)이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815천 명으로 1,716천 명(9.0%)이 증가함.
 - 전년도 조사대상기간(7.15~7.21) 중 법정공휴일(7.17, 제헌절)로 인한 취업시간 감소효과로 금년도 취업시간이 증가

◆ 40대 및 중졸 이하 실업률 증가

- 2008년 7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40대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감소함.
 - 2008년 7월 중 연령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19세(-7천 명), 20대(-15천 명), 30대(-2천 명), 60세 이상(-10천 명)에서 감소한 반면, 40대(7천 명), 50대(1천 명)에서 소폭 증가
 - 2008년 7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19세(12.5%, -1.0%p), 20대(7.0, -0.2%p), 30대(2.9%, -0.1%p), 50대(2.0%, -0.1%p), 60세 이상(1.0%, -0.4%p)에서 감소하였고, 40대(2.0%, 0.1%p)에서 소폭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고졸(-7천명), 대졸 이상(-22천명)에서 감소한 반면, 중졸 이하(3천 명)에서 증가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7월			6월	7월
전 체	851(3.6)	791(3.2)	756(3.1)	795(3.2)	734(3.0)	801(3.4)	767(3.1)	764(3.1)	769(3.1)
15~29세	346(7.6)	330(7.3)	322(7.1)	356(7.6)	312(7.0)	328(7.3)	327(7.4)	346(7.8)	334(7.4)
30~39세	216(3.5)	203(3.3)	189(3.0)	184(3.0)	183(2.9)	193(3.1)	187(3.0)	173(2.8)	183(2.9)
40~49세	151(2.3)	130(1.9)	132(2.0)	128(1.9)	126(1.9)	160(2.4)	138(2.1)	131(1.9)	135(2.0)
50~59세	96(2.4)	95(2.2)	80(1.9)	90(2.1)	78(1.8)	83(2.0)	82(1.8)	81(1.8)	90(2.0)
60세 이상	42(1.7)	33(1.2)	34(1.2)	37(1.4)	35(1.3)	38(1.6)	33(1.2)	33(1.2)	27(1.0)
중졸 이하	150(2.8)	112(1.9)	105(1.9)	115(2.0)	109(2.0)	128(2.5)	120(2.2)	125(2.2)	119(2.2)
고졸	426(4.2)	379(3.7)	378(3.7)	413(4.0)	372(3.7)	402(4.0)	368(3.7)	387(3.8)	406(4.0)
대졸 이상	274(3.3)	300(3.5)	274(3.2)	267(3.1)	253(2.9)	271(3.1)	279(3.1)	253(2.8)	245(2.7)
취업무경험 실업자	40	40	44	63	40	44	49	57	52
취업유경험 실업자	810	751	712	731	694	757	718	707	718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8년 7월 고용동향』, 2008. 8.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증줄 이하(2.2%, 0.2%p)에서 증가하고, 대졸 이상(2.7%, -0.4%p)에서 감소한 반면, 고졸(4.0%, 0.0%p)에서는 변화가 없었음.
- 2008년 7월 중 전체 실업자 769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 명 증가한 반면,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18천 명으로 14천 명 감소했음.

임금 동향

◆ 2008년 2/4분기 임금상승률, 전년대비 6.4% 상승

- 2008년 2/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563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6.4% 상승
 - 상용근로자는 임금총액 증가율 7.5%, 정액급여 증가율 8.8%, 초과급여 증가율 1.7%, 특별급여 증가율 3.1%를 기록
 - 임시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10.4% 하락한 816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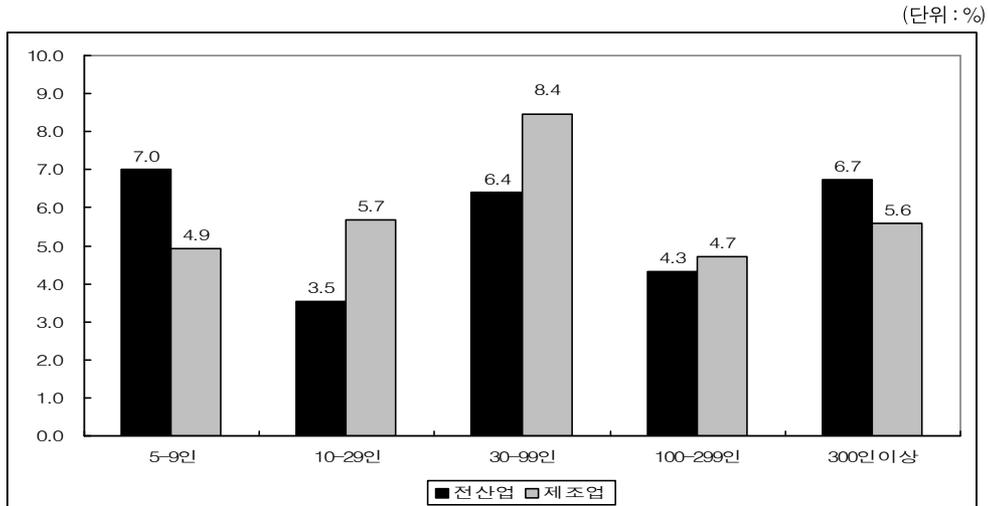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원/월,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510 (-)	2,410 (-)	2,604 (-)	2,719 (-)	2,662 (6.1)	2,563 (6.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661 (-)	2,555 (-)	2,761 (-)	2,888 (-)	2,811 (5.7)	2,746 (7.5)
	정액급여	1,995 (-)	1,995 (-)	2,028 (-)	2,086 (-)	2,103 (5.4)	2,171 (8.8)
	초과급여	156 (-)	167 (-)	165 (-)	172 (-)	168 (8.2)	169 (1.7)
	특별급여	510 (-)	394 (-)	568 (-)	630 (-)	540 (5.8)	406 (3.1)
임시 근로자 임금총액	870 (-)	911 (-)	918 (-)	918 (-)	887 (1.9)	816 (-10.4)	
실질임금(전체 근로자)	2,425 (-)	2,304 (-)	2,472 (-)	2,565 (-)	2,478 (2.2)	2,339 (1.5)	
소비자물가지수	103.5 (2.1)	104.6 (2.4)	105.3 (2.3)	106.0 (3.3)	107.4 (3.8)	109.6 (4.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림 8〕 규모별 임금상승률(2008년 2/4분기)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전산업에서는 5~9인, 제조업에서는 30~99인의 임금상승률 가장 높아
 - 2008년 2/4분기 전산업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9인 7.0%, 10~29인 3.5%, 30~99인 6.4%, 100~299인 4.3%, 300인 이상 6.7%를 나타냄.
 - 제조업에서는 30~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노사관계 동향

◆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대비 증가

- 2008년 8월 25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 분규발생건수는 74건으로 전년동기(72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근로손실일수는 554,669일로 전년동기(331,671일)대비 67.2% 증가함.

◆ 노동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표 7〉 노사분규 주요 지표 동향

(단위 : 개소, 일)

	2007. 8. 25	2008. 8. 25
노 사 분 규 발 생 건 수(개소)	72	74
근 로 손 실 일 수 (일)	331,671	554,699

주 :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자료 : 노동부.

「활동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101호, 2008.6.5. 공포, 1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절차,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창출 및 재투자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품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위주로 되어 있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대한 지원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사회적 기업의 인증 및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건설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한국노총, 정부의 일방적‘복수노조전임자임금’개정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 한국노총은 하반기 노동문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정 합의 없이 이를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노사관계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사안이므로 공개적이고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맞게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함.
 - 선진각국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조전임자 또는 종업원 대표의 유급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ILO도 2002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다’라며 현행 노조법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